

보도설명자료 (16.7.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가전 10% 환급' 우왕좌왕 정부 (16.7.4. 중앙)

1. 기사내용

□ 기사제목 : '가전 10% 환급' 우왕좌왕 정부

- 처음엔 4개 유통사 매장 한정 대형마트·백화점 반발에 온라인·홈쇼핑까지 허용
- 재원 얼마나 늘릴지 불투명, TV만 대상 제한 지적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

□ 환급절차 준비와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7.1일부터는 4개 매장*부터 우선 시행하고 추가가능매장을 7.15일 공지할 예정이었으나

* 하이마트, 전자랜드, 삼성디지털플라자, LG 베스트샵

-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과 매장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매장으로 조기에 확대하였으며

- 제품구매시 준비해야할 정보를 안내*하고 환급을 위해 신청해야할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하였음

* 제조사, 제품명, 모델명, 판매일시, 제품가격, 구매자 확인(휴대폰번호, 성명 등)이 포함된 거래명세서

- 또한, 관련 매장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, 홈쇼핑업체 등과의 협의*를 추진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임

* 7.4(월) 1400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, 홈쇼핑 업체와 간담회 개최(장소 한국에너지공단)

- 1 -



□ 더불어 당초 한국 에너지공단에 개설된 문의 접수창구(031-260-4275 또는 4276)를 7.6일(수)부터 한전 콜센터(☎ 123)와 연계·확대하여 관련매장과 소비자의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할 예정임

□ TV는 에너지수요관리 측면에서 에어컨, 냉장고 등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흡하여

- 환급대상을 국내 판매 수량의 65% 이상('15년 잠정수치, 한국에너지공단) 점유하는 40인치 이하로 제한한 것임

□ 재원과 관련해서는, 환급품목의 예상판매량 예측을 위해 계절적 효과와 인센티브 실시에 따른 수요 증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원소요를 추산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상모 과장
(044-203-5360)